

‘대의왕’의 길 어디에...

東大 불문연·의료원 ‘불교와 의학 접목’ 세미나 ‘주목’

불교는 인간의 정신문화 양식의 하나인 종교다. 의학은 인간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학문이다. 불교와 의학은 인문학과 과학처럼 얼핏 관계 없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이 고통(苦海)에서 해탈하는 원인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원인과 치료는 물론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밝혔다. 부처님이 제시한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이교 득락(離苦得樂)’의 가르침은 인간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학과 다르지 않다. 근본경전인 <아함경>에는 병을 잘 알고, 병의 원인을 잘 알며,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의왕(大醫王)’이라 했다. 여러 대승경전에서는 ‘병에 따라 약을 주고, 보살은 그(여래)를 따라 널리 교화한다’고 해 부처님을 ‘대의왕’으로 지칭했다.

마음공부라 불리는 불교적 수행법은 몸과 마음이 하나(心身不二)인 까닭에 마음은 물론 몸도 건강하게

한다. 수행으로 체득하지 못한 경지에 대해 막연한 집착만 갖던 이들에게 과학적 수치와 이론을 토대로 한 실험결과 등을 근거로 불교와 의학의 접목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립 동국대 의료원(원장 이명목)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불교와 의학의 만남’을 주제로 5월 28일과 30일 1부와 2부로 나눠 불복합세미나를 개최한다.

제1부는 ‘뇌, 경락 그리고 마음’을 주제로 5월 28일 오후 2시 동국대 일산병원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박인성 원장의 기조발제 ‘불교는 왜 의학에 관심을 가져야하나?’를 시작으로 △신희섭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의 ‘뇌 연구를 통한 마음의 이해’ △소광섭 서울대 교수의 ‘선과 경락 및 뇌신경 병환시스템’ △박준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뇌와 의식 그리고 불교’가 발표될 예정이다.

제2부는 30일 오전 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영장에서

‘지유와 소통’을 주제로 펼쳐진다.

구병수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장이 기조발제 ‘의학적 관점에서 보는 불교’를 비롯해 △인환 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의 ‘불교계에서의 의학과 건강법’ △장현갑 영남대 명예교수의 ‘불교수행과 심신치유’ △이문성 한국분석심리학회장(정신과의사)의 ‘선과 정신분석의 만남에 대한 소고’ △강용원 마음함기원의 원장의 ‘한국적 심리상담의 모색’ △김재일 아주대 의대 교수(前 티벳의학원장)의 ‘티벳의학에서 보는 마음, 질병 그리고 건강’ △전세일 포천전문대의 대체의학대학원장의 ‘몸과 마음 그리고 심신의학’이 발표된다.

오후 1~2시에는 법륜 스님(동국대 교수) 등 9인의 연설회 공연도 펼쳐진다.

이미 서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불교적 수행법이 임상치료에 응용됐다. 미국 매사추세츠 의료원의 존 카바트(Jon Kabat-Zinn) 교수가 위빠사나 수행법을 응용해 ‘마음챙김(mindfulness)’의 명상법 체계를 심리치료에 접목시킨 것이 그 예다.

서구 의학전문가들의 발 빠른 도입에 과학적인 치료검증은 이미 끝났고, 의료보험까지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행사는 조계종립의 학술과 의학을 다루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개인과 학회 등 개별단위로 이뤄졌던 불교의학 연구에 메이저급 기관들이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다.

장현갑 명예교수는 “명상과 의학은 마음과 몸을 측정해 비정상이란 것을 알아차려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 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주장했다.

장 명예교수의 설명처럼 본래 부처인 자기 본성을 비추는 수행(명상)이나, 본래 건강한 신체를 회복하는 의학이나 본질은 같다.

1600여 년 한국불교에서 불교와 의학은 이미 오래 전 만났어야 했다. 28일과 30일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국대 의료원을 주축으로 한 의학 전문가들의 만남에서 대의왕이 나타릴지 불자들의 기대가 크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오체투지 108일의 '염원' 수행을 하고 있는 오체투지 순례단은 순례 108일째인 5월 21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시청 앞 광장을 출발해 서울 조계사에 도착했다. 이날 시민 300여 명과 함께 한 순례단은 비와 함께 땅에 엎드리며 사람, 생명, 평화를 위한 순례를 이어갔다. 순례단은 오후 5시 조계사에서 진행한 사람·생명·평화를 위한 시국법회에 참석했다. 관련기사 3면

“전통사찰 공원지역서 제외하라”

조계종, 문화유산지역 신설·공원법 개악 중지 등 요구

“(정부) 사찰 소유지에 대한 사유권 침해를 중단하고, 문화유산지역을 신설해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을) 국가문화정책에 따라 관리하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전통사찰 경내지를 국립·도립·군립 등 자연공원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문화유산지역보존추진위원회(위원장 원학, 이하 추진위)는 5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문화유산지역보존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 내 전통사찰들이 갖춘 성보문화재와 천혜의 자연환경은 승가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유

산”이라며 “비판을 감수하면서라도 전통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격려했다.

위원장 원학 스님은 “국립공원 내 사찰에 대해 환경부는 문화적 마인드와 결여된 채 자연생태계 보전과 공원자원 훼손 방지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며 “종단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환경부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추진위 부위원장 현은 스님은 “국립공원 제도는 이 지역을 사찰 토지가 아닌 국유지로 오인하도록 했다”며 “종교편향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총회 의장단 및 중진의원, 전국 문화재사찰 주지스

님, 자연공원 구역내 전통사찰 주지스님 등은 ‘잘못된 자연공원 제도의 전면적 시정을 요구하며’라는 부제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스님들은 결의문에서 △전통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등에서 해제 △(가칭)문화유산법 제정 통한 전통사찰 규제 단일화 및 (가칭) 문화유산지역 신설 등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은 “종단 내부의 역량을 결집해 종단의 의지에 관철을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구본사 등 사찰별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 정감회 및 시민환경문화단체 등과 연대해 자연공원법 개악 저지 및 관련 법률 제·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선지식을 찾아서 ▶14 고산 스님



인터뷰 ▶8 보광 스님

도반의 향가-김해자 누비장 ▶9

뉴욕 불광선원 법당 개원 현장 ▶5

국제불교영화제 참가기 ▶19

동주 스님 불교의식집 집대성 ▶18

법구경

꽃을 해치지 않은 채
꽃가루만 따가는 벌처럼
잠깐 이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합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및 법구경도 맞춘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02)722-1850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011-336-4665
대안불교조계종 천년교찰 소백산 용문사

얼레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차, 각종 차음,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

사회 리아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 Dream 꿈 드림

“학교 끝나고 어디 가니? 나는 공생청소년센터 간다! 우리 거기서 만나!” 불교전통이 살아 숨쉬는 동남아시아의 숨은 보배 리아스. 순수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리아스에는 절대 빈곤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74%가 영양 부족으로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등록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와 본지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 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리아스 싸이타니구 지역 3000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최: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관: (사)지구촌공생회
- 기간: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금액: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의: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용문사 윤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용문사 전경,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비(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동불사, 성보박물관,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44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목각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들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제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탕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용문사 오시는 길

버스: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I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함창 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대승사 10분소요, 김용사 30분소요, 보문사 30분소요, 장안사 30분소요, 부석사 50분소요, 청량사 40분소요, 명봉사 30분소요, 봉정사 30분소요

경관호수 (10분 소요), 용문사 전통방탕터 (5분 소요), 용문사 윤장대 (5분 소요)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 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 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교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